

지역 매아리

부안 하서면, 해맞이 행사 개최

하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19년 기해년 1월 1일 새해 첫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석불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해맞이 행사는 매년 석불산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 50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 6시 20분부터 참여자 소원지 쓰기 시작으로 전대대 정상등반, 산신제, 축문낭독, 주민간 상견례, 떡국나눔행사,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멀리 타지에서 고향에 대한 애환심으로 가득찬 재경하서향우회, 재부안하서향우회, 하서중동동문회 등이 올해의 마지막 막내 하서면 청호리 청호수 마을에서 숙박을 한 후 새해첫날 석불산 해맞이 행사를 참여해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다.

정읍시, 내년부터 저소득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당 월 최대 9,300원, 연간 약 11만1,600원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대상 및 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장애인(1~3급)가구, 19세미만 3자녀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며, 2019년 1월 부과분부터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며, 모든 감면대상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

또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감면신청서, 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증본,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이며, 본인이 행정정보 이용을 동의할 경우에는 감면신청서와 요금납부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부천국 고창 함께 만들어요”

기업·단체의 이웃돕기 성금·장학기금 기탁 줄이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고창군 관내 기업·단체의 이웃돕기 성금과 인재 키우기 장학기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고창군 고구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고창황토배기정정고구마연합(영)이사 서재필은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과 고창군인재키우기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은 지난 15일 개최한 '2018고창농악송년콘서트' 수익금 313만원을 장애인을 위해 써달라며 고창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종만)에 지정 기탁했다.

고, 야산개발회사인 세영개발(대표 최재필)도 500만원을 기탁했다.

올해에도 고창풍천장어양식어업협회와 선운양만장(대표 오교만)은 각각 500만원씩을 고창군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흔쾌히 전달했다.

고창군 무술생연합회(회장 이용희) 회원들도 고창군청을 방문하여 회원이 십시일반 모은 300만원을 전달했고, 고창커피연구회(회장 유현중)도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사)한국쌀전업농고창군연합회(회장 최경수) 회원들도 직접 농사지은 쌀 800kg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경고창화단협의회(전현직 재경군민회장·전현직 14개 읍면 재경면민회장단 모임)에서 500만원을 기탁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인재 키우기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시니 올 해는 어느 해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듯하다”며 “군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비등으로 지원되며 장학기금은 고창군장학재단에 기탁돼 고창군 인재 키우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태관광축제 통한 환경보전 인정받다

정읍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표창

정읍시는 새만금유역 7개 시·군중 새만금수질개선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4개 항목 11개 평가지표가 대상이며, 이 중 정읍시는 4개 항목 중 2개 분야인 재정분야와 가족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읍시의 평가 내용을 보면 재정분야에서는 예산(국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가족분야에서는 휴폐업축사 취소, 가족분노 지

도점검, 홍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생태관광축제를 통한 자연환경 생태보전은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또한 시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평가와 관련하여는 첫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그간 쌓인 노하우로 예산확보와 집행에 무리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8년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 부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5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부안군은 올 한해 환경·축산 및 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과 예산 조기 집행 및 업무 연찬을 통한 수시 점검과 토의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진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이번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새만금 수질개선 및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기울인 다양한 노력에 대한 평가로, 부안군은 친환경축산과 맑은 물사업소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휴폐업 축사 취소, 가족분노

배출 농가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생활 우수 적정 처리 방류 지도 등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비와 군비 확보, 조기 집행 등 재정분야와 하수도 사업 및 개인하수처리장 지도·점검 등 하수도 분야, 가족분노 지도 점검 등 가족분야, 행정분야 등 4개 항목 11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형민 친환경축산과장은 “부안군이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건, 직원들이 총력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단풍베리's 마스 폭탄세일모셨네!

2018.12.22토 - 12.30일
단 9일간 드리는 특별한 선물
20~30% 할인 + 무료배송 혜택

팔팔하게! 으라차차!
원기회복에 최고 x 국내산 100% 정읍 베리류

단풍미인소풍몰이 오는 30일까지 최대 50%까지 파격 할인, 택배 무료배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엄격한 심사 거쳐 선정된 특산품 전국 소비자에게’

단풍미인소풍몰, 연말 베리류 상품 특가행사 가져

정읍시는 베리류 판매 촉진을 위해 최신 트렌드에 맞게 대형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키워드 마케팅, 페이스북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정읍 베리류 가공상품을 저렴하게 원하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복분자·오디·블루베리·블랙베리·아로니아 등과 동결건조분말, 아로니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먹는 블루베리 등 다양한 가공상품을 최대 20%에서 최대 50%까지 파격 할인, 택배 무료배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정읍은 많은 일조량과 온난한 기후, 비옥한 토지, 풍부한 물 등으로 베리류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으며, 현재 정읍에서는 2,047농가(482ha)가 재배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읍 베리류 상품은 품질과 포장 면에

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 특산품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해 판매 활성화하고 생산농가의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소풍몰(http://danpoongmall.jeongeup.go.kr/)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무료전화(080-535-4345)로도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낙후된 농촌마을 대대적 환경개선사업에 나서

정읍시, 내년도 300여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85억원 투입

정읍시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민원해결을 위해 내년도 2월말 조기 착공할 계획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마을 진입로, 안길 및 모정 정비 등의 주민편익과 직결된 사업으로 정읍시에서는 300여개 사업에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기 착공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조기 착공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콘크리트 포장에 노후되어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안길도로에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시가 장기 특수시책으로 선정한 ‘마을안길아스콘포장사

업’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연 12억여원씩 총120여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안길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시는 2018년에도 ▲마을 안길 정비 250개소, 68억원 ▲마을 배수시설 정비 100개소, 27억원 ▲모정 등 편의시설 정비 60개소 5억원 등 총100여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했다.

유진섭 시장은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마을안길아스콘포장사업을 차질 없이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감싸주어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